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남상규	영문	NAM SANGGYU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빌니우스 공대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군 전역 이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여행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교에 입학 후부터 알고 지내게 된 몇몇의 같은 과 선배들이 빌니우스공대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그 후기를 듣고, 평범한 학교생활 외에 다른 경험을 하나쯤은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에 있어 장기간 유럽 거주 및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어울릴수 있는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취업준비에 힘들어지기 이전인 2018년 내에 꼭 교환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계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 준비 ->

파견대학 국제 교류원 측 담당자가 일정시기가 되면 해당학기의 수강 가능한 과정리스트들과, online application 관련 메일을 보내면 그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토된 서류가 통과된다면, 입학허가증이 메일로 올 거 예요.

비자발급 절차 ->

학기가 시작 된 후, 파견대학 국제교류원 측 담당자가 비자관련 제출서류를 보내 줄 거 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리투아니아 비자발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미지수들이 있고, 쟁쟁조약에 의한 체류가능 일수가 있기 때문에 웬 만하면 일찍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구입->

저는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키세스항공사를 통해 리투아니아로 가는 표를 싸게 구매했습니다. 어차피 파견학교에 가면 유럽여행에서의 혜택을 받기위해 VGTU의 국제학생증과 ESN카드를 따로 만들게 되지만, 한국에서 리투아니아로 입국할 때와 귀국할 때 항공권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금오공과대학교의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 및 기숙사신청 ->

입학허가가 떨어지면, 파견대학 국제교류원 측에서 수강신청 및 기숙사신청관련 메일이 날아 올거예요. 수강신청은 금오공대에서 전공과목 같은 경우, 본인의 학과에 물어보고, 우리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본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신청은 기숙사담당자로부터 메일이오면 형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관련메일이 온다면, 같이 가시는 분들과 서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우선 1학기에 파견을 오게 된다면,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더 춥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춥다고 느껴졌습니다. 1학기 파견 학생분들은 전기장판이나 장갑 등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의 거의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종강을 하실 텐데, 학기가 끝나고 여행을 목적에 두신다면, 가벼운 차림의 옷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유럽의 여름은 한국처럼 습하지 않아, 꼭 반팔을 착용하진 않아도 되지만, 햇볕이 많이 뜨겁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일단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싸진 않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 단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자재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여행을 하기에 썩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리투아니아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핀란드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디이나 유랑 같은 유럽여행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미리 예약하신다면 훨씬 저렴한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숙사에 생활을 하실 경우, 기숙사 바로 옆에 VGTU 본관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건물에서는 보통 교양관련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저의 전공인 기계공학과 건물은 시내에 있어 전공 수업을 들을 때면, 50분씩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시간표를 작성하실 때, 본관과 학과를 왕래하는 시간을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Design of Machine and Instrument 1
Applied Physics
Lithuanian Language 1 (For Foreign Students)
Engineering Ecology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150유로의 보증금을 처음에 지불해야 하고, 매달 15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부가 들어와 주방과 방, 욕실을 청소해주고, 본인이 원한다면 화요일마다 침대 커버와 베게커버, 수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사할 때는 지저분하고 살 곳이 못 된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괜찮고, 몇 개의 층들은 리모델링을 해 본교의 기숙사보다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2개의 방이 1개의 키친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생활비는 여행을 다니는 등, 돈을 많이 쓸 일이 없다면 기숙사 비를 포함해 넉넉하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사용했고, 등록금을 제외하고, 총 1200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ESN프로그램이 있는데 활동하지 않았고, 세종과 한울이라는 한국문화교류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따로 홍보도 없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저의 수강과목중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웨이트, 요가, 트래킹, 유도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기숙사 근처 체육관에서 진행될 것이고, 저는 웨이트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교수님도 엄연히 계시는 과목이지만, 자유분방하게 각자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 괜찮았습니다. 또한 본교의 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임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의 특성상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재, 유럽인들에게 생소한 외모 등으로 생각보다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노력 한다면 잘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유럽에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교환학생 생활이 되어 실망할지도, 값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학문을 배우기 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를 떠나 한국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교류를 해보고 싶었고, 한 학기 동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갔기에, 약 6개월 동안의 교환학생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영어실력이 그렇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외국인들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